



##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분석 결과, 테러혐의점 없음

### □ 신고 사건 개요

- 최초 신고 : 7.20(목) 12:30경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(3명)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·호흡불편 등 증상 호소
- 관계기관 신고접수 현황 : 2,141건(7.24 05시 현재)

-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\*한 결과,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.

\* 대테러합동조사팀(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) : 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,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예방조치, 사건 분석 등 테러혐의점 규명

### □ 7.20일 최초 신고 접수된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 사건의 경우

- 소방·경찰 등 초동 출동기관이 검체(봉투, 선크림)를 수거하여 1차 검사\*한 결과, 화학·생물학·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,

\* 소방 특수화학구조대, 軍 대화생방테러특임대, 보건소 등 합동조사

- 어지러움 및 호흡불편을 호소했던 직원(3명)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퇴원(7.22)하였음

-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\*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,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.

\* 국방과학연구소(ADD) : 국제 화학무기금지기구(OPCW)가 인정한 화학작용제 관련 검증능력 보유 및 생물학 관련 물질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가능한 기관

□ 여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·소방 등 초동 출동기관이 의심되는 검체(봉투, 화장품 견본, 핀셋 등) 679건\*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,

\* 전체 신고 2,141건 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,462건 제외

○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,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.

□ 7.24일 기준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, 대테러 관계기관은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.

○ 국민들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 관계기관(112·119)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참고로 정보·수사당국에서는 인터폴 등 해외 정보·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부 장	신양수 (044-2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사무관	전지원 (044-200-2034)

